

말레이시아에선 지금, 이슬람형법 후두드(hudud) 법 실행을 둘러싸고 논란 중

작성자: 홍석준

□ 최근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형법이라 불리는 후두드(hudud)¹⁾ 법의 실행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과 야당, 야당 내부 및 지방의 주 정부 사이에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

○ 이슬람정당인 PAS(Parti Islam Se-Malaysia)가 집권 중인 말레이시아 반도의 동북부에 위치한 끌란탄(Kelantan) 주의 주 장관이자 PAS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널리 알려진 닉 아지즈(Nik Aziz)는 끌란탄 주 내 무슬림을 대상으로 후두드 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후두드 법 실행을 둘러싸고 말레이시아 정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PAS 측의 발언에 대해 민주행동당(DAP: Democratic Action Party)²⁾은 후두드 법 시행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PAS가 후두드 법 시행 안을 당내 법안으로 상정할 경우 민주행동당 전 지도부가 PR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섬.
- 민주행동당 수뇌부들은 PR은 '정의, 부패 척결, 인권 존중'을 아젠다로 모인 연합야당의 정당 집단으로 후두드 법 시행은 PR 내 어떤 공동 정책으로도 언급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섬.
- 이에 대해 야당연합인 PR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은 반대 입장을 밝힘.
- 안와르 이브라힘은 자신이 무슬림으로 후두드 법의 근간이 되는 꾸란(Qur'an)을 존중하긴 하지만 후두드 법의 실행이 PAS, DAP, PKR 등 3개의 당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PR의 기본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음.
- 그는 "3개의 정당으로 이루어진 PR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모두 연방 헌법에 기초를 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들이 후두드 법에 관한 나의 의견을 묻는다

1) 후두드(hudud)란 '제한'을 뜻하는 아랍어로, 절도, 간통, 음주, 배교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다루는 이슬람 형법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2) 민주행동당(DAP)은 PAS, PKR(Parti Keadilan Rakyat)과 함께 야당연합체인 PR(Pakatan Rakyat)을 결성하고 있는 화인(華人)계 야당이다. 이슬람정당인 PAS와 안와르 이브라힘이 고문으로 있으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PKR, 그리고 화인계 정당인 DAP 등 3개의 주요 야당이 연합해서 연합야당, 즉 PR(Pakatan Rakyat)을 결성하여 지난 2008년 총선 때 말레이시아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슬랑오르(Selangor) 주, 빠락(Perak) 주, 빠넝(Penang) 주, 끌란탄(Kelantan) 주 등 4개 주를 연합여당인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에게서 탈환해 내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면 PKR과 PR은 기본적으로 연방 헌법을 지지한다고 답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PAS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끌란탄 주의 주 수상이기도 한 닉 아지즈에게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함.

- 하지만 PAS는 민주행동당과 안와르 이브라힘의 반대 입장 천명에도 불구하고 후두드 법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 특히 PAS가 집권하고 있는 끌란탄 주에서는 후두드 법이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 됨.
- 끌란탄 주의 한 관계자는 "후두드 법이 PR의 일반 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끌란탄 주의 경우, 연합 야당인 PR이 결성되기 전이라고 할 수 있는 1993년도에도 샤리아에 입각하여 범죄에 관련된 이슬람 형법인 후두드 법이 주 정부 차원에서는 통과된 바가 있다"고 말하고 안와르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끌란탄 주 정부는 후두드 법을 시행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분명히 전달함.
- 끌란탄 주 정부는 이미 기술위원회를 설립해서 후두법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닉 아지즈 끌란탄 주의 주 수상 역시 민주행동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끌란탄 주에서는 후두드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

○ 이에 대해 최근 정부 여당의 나집 총리는 말레이시아에서 후두드 법은 실시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기본 입장을 밝힘.

- 나집 총리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두드 법의 적용은 현실과 환경을 고려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적용하여 실행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
- 그는 "이슬람을 따르는 행정부의 목표는 이슬람법인 샤리아(Syariah)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는 말레이시아 국민의 종교를 보호하고, 삶과 도덕,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함.
- 이는 "현 법제 하에서 샤리아의 원리와 목적이 가장 뛰어난 것이며, 몇몇 극단적인 부분을 제외하곤 샤리아에는 후두드 법의 요소가 이미 들어 있는 것"이라는 입장
- 그는 후두법이 실행되지 않는다고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법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슬람 정당인 PAS의 후두드 법 실행 관련 입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PAS의 후두드 법 실행 발언은 말레이인들의 마음을 사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 이와 같이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슬람형법 후두드 법 실행을 둘러싼 정부 여당과 야당 및 야당 내부, 그리고 지방의 주 정부 사이의 공방 또는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http://thestar.com.my/news/story.asp?file=/2011/12/30/nation/10179787&sec=nation#13275636384911&if_height=631

http://thestar.com.my/news/story.asp?file=/2011/12/10/nation/10070706&sec=nation#13275643064251&if_height=645

http://thestar.com.my/news/story.asp?file=/2011/12/8/nation/10057115&sec=nation#13275644730901&if_height=609

<http://thestar.com.my/columnists/story.asp?file=/2011/12/4/columnists/behindtheheadlines/10031715&sec=Behind%20The%20Headlines>

http://thestar.com.my/news/story.asp?file=/2011/11/10/nation/9875687&sec=nation#13275646176801&if_height=645

<http://thestar.com.my/news/story.asp?file=/2011/10/27/nation/9782519&sec=nation>

http://thestar.com.my/news/story.asp?file=/2011/9/25/nation/9571868&sec=nation#13275639559341&if_height=573